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4.(목) 06:00 < 4.4.(목) 석간 > 배포 2024. 4. 3.(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 열려

정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지원에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4.(목),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식」과 원전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이하 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부행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직무대행),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였다.

먼저,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은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 협력에 합의하였다. 각 기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사업 공고, 지원기업 선정, 대출 심사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34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되었으며, 4월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전액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 수혜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원전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전기업 대표들은 최근 일감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활력을 찾은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회복세에 접어든 원전산업이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원전 기업들도 신규 투자, 기술력 제고 등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320)
		담당자	사무관	황창호 (044-203-53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보충 설명 >

❶「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개요 및 특징

[규모·금리] '24년 약 1천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설자금, 운전자금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3년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되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2%대' 최저 수준의 금리이다. '24.1분기 기준 대출금리는 2.25%이며, 현재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는 평균 대출금리(5~6%)의 절반 이하이다.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의 경우 시설자금 최대 10년, 운전자금 최대 2년으로, 작년 3월 2천억원 규모로 출시한 산업은행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상품(대출한도 50억원, 대출기간 2년)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대출심사] 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받는다. 참여 은행은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영업점의 대출 심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부 은행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신규 설비 투자기업에 대해 전결권을 완화하는 등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❷「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 현황 및 기대효과

올해 1~2월 약 2주간 지원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64개 기업이 약 1,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50개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업은 주로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한다. 기업들은 지원받은 대출자금을 운전자금의 경우 인건비 및 자재구매비, 시설자금은 건물 신·증축, 설비투자 비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A社는 운전자금 9억원을 신한울 3·4 주기기 부품 제작을 위한 인건비, 자재비로 활용
B社는 시설자금 14억원을 원전 보조기기 생산 확대를 위한 공장 증축 및 설비증설에 활용

동 사업은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업체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